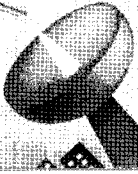




회원사 소식

11월 13일
11월 14일
11월 15일
11월 16일
11월 17일
11월 18일
11월 19일
11월 20일
11월 21일
11월 22일
11월 23일
11월 24일
11월 25일
11월 26일
11월 27일
11월 28일
11월 29일
11월 30일



☐ 삼성전자, 전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삼성전자와 7개 계열회사, 1,350개 협력사와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



삼성전자는 7월 22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서울통신기술, 삼성전자로지텍 등 삼성전자의 7개 계열회사, 주요 협력사 대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이운우 삼성전자 대표 부회장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사와의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이 상생협약 참여 규모는 삼성전자 1차 협력사만 740여 개, 7개 계열회사의 1차 협력사까지 포함, 그 대상 기업이 1,350여 개에 이른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탄생시키는 의미있는 자리이며, 이같이 긴밀한 협력체제의 구축은 개별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강화 등 경제살리기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협력사 대표모임인 '협성회'의 이세용 회장(이랜텍 대표)은 "삼성전자가 그간 협력사 지원과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협력사 역시 끊임없는 혁신과 경쟁력 확보를 통해 초일류 기업에 맞는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삼성전자가 전담부서인 상생협력실을 만들어 협력사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의 주 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 상호간 관련법규 철저히 준수 ▲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 도입 ▲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 등이다.

■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 도입

협력업체 선정에서부터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1.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2.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3.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 제시

협력사의 공장선진화, 기술개발, 인력육성 등을 통한 종합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자금지원 / 혁신기법 전수, 프로세스 개선 등 현장지원 / 기술지원·보호 / 차세대 경영자 양성 과정 등 교육 지원

이같은 지원 대책들은 지난 5월 신설된 '상생협력실'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협약에 담긴 세부 목표들은 그간 협력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도출한 것으로, 협력사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삼성전자 역시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추진된 것이다.

삼성전자 이운우 부회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영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력사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을 공유하는 진정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 LS전선, 북미최대 전선회사 '수페리어 에식스' 인수 성공

주식공개매수를 통한 국내 최초의 해외기업 인수 사례



LS전선(대표 구자열)은 한 달간의 주식공개매수(Tender Offer)를 통해 확보한 86.88%와 잠정청약(Guaranteed Delivery) 주식 7.04% 포함하여 총 주식의 93.92%를 확보함으로써 북미 최대의 전선회사인 수페리어 에식스(Superior Essex)사 인수에 성공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LS전선은 지난 6월 11일 수페리어 에식스사의 경영진이 주식공개매수 의사에 대해 동의한 후, 나스닥의 수페리어 에식스 주식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1주당 45달러에 공개매수를 진행하여 인수에 성공함으로써 주식공개매수를 통해 해외기업을 인수한 국내 최초의 사례가 됐다.

LS전선은 수페리어 에식스사를 자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전선 부문에서 가온전선과 JS전선을 포함하여 2007년 기준, 매출 6조 6,000억원, 영업이익 2,800억원에 이르는 세계 3위의 전선업체로 발돋움하게 됐다.

미국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수페리어 에식스사는 미국 외에 멕시코, 독일, 프랑스 등 북미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25개 공장에서 권선과 통신선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해 약 29억 9,300만 달러의 매출과 약 1억3,000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세계 10위권의 전선 제조업체로서, 권선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 1위, 통신선 분야에서는 북미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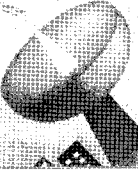
LS전선은 전력케이블, 광통신케이블과 전선 소재 중심의 기존 사업 구조에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 권선과 통신선 제품을 보강함으로써 전선 분야에서 매우 이상적인 제품 라인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아시아와 북미, 유럽, 중동 등 지역별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공유함으로써 수익 향상 및 원재료 구매 가격 절감 등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열 LS전선 부회장은 "이번 인수는 수페리어 에식스사의 우수한 경영진과 경영 시스템을 확보함으로써 LS전선이 글로벌 경영 전략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사 소식



▣ 현대홈쇼핑, '소비자 불만 자율관리' 선포



현대홈쇼핑이 소비자 불만 '제로'를 선포하고 나섰다.

현대홈쇼핑(대표 하병호)은 지난 7월 16일 서울 천호동 본사에서 '현대홈쇼핑 CCMS 실행 선포식'을 개최하고, 고객만족사업부 박경택 사업부장을 CCMS 관리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은, 소비자 불만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관리에 대한 설계와 운영에 관한 기본 지침을 마련해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대홈쇼핑은 이날 선포식에서 고객만족사업부 박경택 사업부장을 CCMS 관리자로 임명하고 전사적인 자율관리 위원회 구성, CCMS 사내 홍보 강화, 소비자 불만 해결 전문가 육성 등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하병호 현대홈쇼핑 대표는 이날 CCMS 실행 선포식에서 "고객과의 신뢰관계 구축은 기업이 생존을 걸고 반드시 구현해야 할 대명제"임을 상기시키며 "기업과 고객의 가치가 함께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 포스코 기업집단, '2008년 제3회 Fair Trade Academy' 개최



포스코는 기업집단 차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확산을 위해 9월 10일 '2008년 제3회 Fair Trade Academy'를 포스코건설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로 개최된 'Fair Trade Academy'에서는 포스코 기업집단소속 계열사 중 14개사(포철산기, 포철기연, 포스코파워 등)에서 공정거래 업무 담당자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Fair Trade Academy에서는 계열사의 공정거래부문 운영사례를 포스코에서 발표했으며, 포스코건설과 포스데이타에서는 자체 점검한 공정거래부문 운영사례를 발표하는 등 참석자들 간의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공정거래에 대한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포스코는 향후 기업집단 공정거래 담당자들의 전문 역량 향상을 위해 '포스코 기업집단 Fair Trade Academy'를 분기당 1회씩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 삼성전기, 협력사와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



삼성전기는 9월 5일 수원사업장에서 '제5회 협력회사 원원 활동대회' 개최 및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력회사 원원 활동대회'란 전기가 지난 1년간 경영혁신 활동 성과가 뛰어난 우수 협력회사를 선정 및 시상하고, 혁신사례를 공유·전파하는 행사로,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5회째 실시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서는 대양전자, 방주광학, TSP 등 경영, 품질, 제도 등에서

우수한 혁신활동을 펼친 6개 회사가 모범 협력업체로 선정, 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삼성전기 강호문 사장, 공정거래위원회 서동원 부위원장, 지식경제부 중소기업 중앙회, 전경련, 학계 관계자 및 111개 협력회사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내용은 ▲ 관련법규의 준수 ▲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 도입 ▲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등이다.

특히, 3대 가이드라인 도입은 협력업체 선정부터 계약체결까지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삼성전기는 2004년부터 5년간 추진해온 상생협력 1기를 마무리하고, 상생협력 2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삼성전기는 95개 협력회사에 28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과 경영컨설팅 및 임직원 교육훈련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협력사당 평균 거래금액이 2004년 15억원에서 올해 33억원으로 2.2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삼성전기는 지난 5년간 활동으로 상생경영의 기반이 정착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기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엔지니어링 컨설팅 추진 등 협력회사 기술역량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1년간 협력회사의 설비투자 및 신기술 개발에 약 100억원의 무이자 자금 대여, 금융기관과 연계한 네트워크론 50억원 등 총 165억원을 지원하며, 프로세스 개선 및 현장지원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삼성전기 강호문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글로벌 사업역량 확보를 통한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협력을 확산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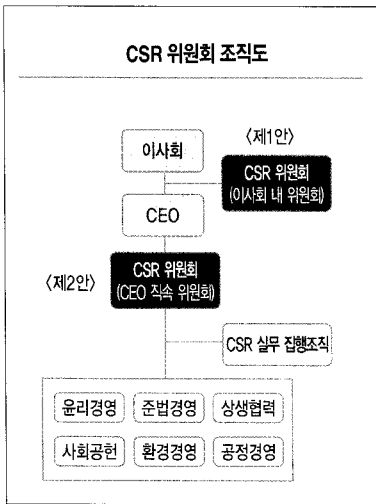


회원사 소식



전경련, '사회적 책임(CSR) 추진조직' 가이드라인 제시

기업 사회적 책임(CSR) 추진 조직 설치 확산



국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추진 조직 설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경련 조사 보고서(국내의 CSR 추진조직의 운영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85개 응답 회원사 중 60개사(70.6%)가 윤리, 준법, 상생협력, 환경, 사회공헌 등 CSR을 추진하는 실무조직을 두고 있으며, 이 중 40개사(47.1%)가 'CSR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40개사 중 24개사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윤리 경영의 정책방향과 계획을 수립하여 임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11개사는 윤리경영 뿐만 아니라 환경, 상생협력, 공정경영, 사회공헌 등 CSR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CSR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4개사가 사회공헌위원회를, 1개사가 환경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양세영 사회협력본부장은 "CSR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들이 CSR의 전 분야를 전사적으로 관리·통제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함으로써 각 분야별로 시행되는 CSR 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경련은 기업들이 종합적으로 CSR의 정책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CSR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CSR위원회 설치 방안으로 '이사회 내 소위원회' 형태와 'CEO 직속 위원회' 형태를 제시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는 대내외 대표성과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CEO 직속 위원회'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는 만큼 각 사가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선택하여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CSR 관련 조직'이 없는 기업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미 윤리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등 'CSR 관련 위원회'를 운영 중인 기업은 기능을 확대·재편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 설치와 함께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부서별로 추진되는 CSR업무를 총괄조정하며,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기능을 하는 CSR 실무 집행조직을 위원회 산하에 둘 것을 제안했다.

▣ 제약사 2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한국제약협회 회원사 중 20.81%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4일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선포하고 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전체 회원사 197개사 중 41개사가 CP를 도입했다.

특히, 협회 임원사(이사장단, 이사사, 감사사 등) 50곳 중 34개사가 CP를 도입했다.

9월 4일 현재 CP를 도입한 임원사는 안국약품, 유한양행, 동아제약, 중외제약, 한미약품, 동화약품, 녹십자, 보령제약, 종근당, 건일제약, 국제약품, 대웅제약, 동국제약, 명문제약, 부광약품, 삼아제약, 삼일제약, 신풍제약, CJ제일제당, 엘지생명과학, 일동제약, 일성신약, 일양약품, 제일약품, 진양제약, 코오롱제약, 태평양제약, 한국오츠카제약, 한독약품, 한림제약, 한울제약, 현대약품, 환인제약, 한국파마(이상 무순) 등이다.

또, 근화제약, 드림파마, 비씨월드제약, 서울제약, 유영제약, 제일기린약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비임원사 7개사도 CP를 도입했다.

제약사들은 197개 제약협회 회원사 중 공정거래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이사사 순서대로 CP를 도입키로 한 바 있다.



토막뉴스

■ LS, 지주회사체제 출범

LS그룹은 기존 LS전선을 7월 1일부로 존속법인인 지주회사 (주)LS와 신설법인인 사업자회사 LS전선(주)와 LS엠트론(주)로 각각 분할했다. 공정위도 LS의 지주회사 전환을 승인했다.

■ 비앤지스틸,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변경

비앤지스틸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가 정원택 영업담당 이사대우에서 이선어 재경담당 이사로 변경됐다고 8월 13일 공시했다.

■ KT, KT데이터시스템 계열사로 추가

KT는 9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KT 계열편입 통지를 받아 KT데이터시스템을 계열사로 추가한다고 공시했다.